

守國寺 木造阿彌陀佛坐像의 腹藏典籍 研究

A Study on the Votive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 Stored in the Wooden Seated Statue of Amitabha at Suguksa Temple

송 일 기 (Song, Il-Gie)*

◁ 목 차 ▷

- | | |
|-----------------------|------------------|
| 1. 緒論 | 4. 腹藏典籍의 書誌的 檢討 |
| 2. 守國寺의 沿革 및 木造阿彌陀佛坐像 | 4.1 고려시대 불교전적 |
| 2.1 수국사의 연혁 | 4.2 조선시대 불교전적 |
| 2.2 목조아미타불좌상의 조성 및 중수 | 4.3 元代 普寧寺大藏經 |
| 3. 阿彌陀佛 腹藏의 印刷物 收拾現況 | 5. 守國寺 腹藏典籍의 性格 |
| 3.1 佛教典籍類 | 5.1 腹藏典籍의 層位 |
| 3.2 印本陀羅尼類 | 5.2 腹藏典籍의 主題的 特徵 |
| | 6. 結言 |
|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는 서울 은평구에 소재하는 수국사의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수습한 복장전적의 서지적 특징과 문헌적 성격을 고찰한 것이다. 수국사 복장유물에는 다양한 불교전적 24점과 다라니 20점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불교전적은 고려본이 7점, 조선본이 11점, 그리고 원나라 보령장 6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처음 소개되는 유일본으로 고증되었다. 수국사 복장본은 대략 1239년 조성과 1388년 및 1562년의 2차례 중수시기에 시납되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인본다라니와 밀교부 경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상의 조성배경과의 상관성이 주목된다. 복장본 중 가장 주목되는 판본은 사간판 화엄경과 밀교대장, 그리고 정축자본 금강경오가해 등을 들 수 있겠다.

要語: 수국사, 아미타불, 복장유물, 밀교대장, 금강경오가해, 심원사, 최중준, 성인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접수일: 2014년 5월 23일 최초심사일: 2014년 6월 12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5일

<ABSTRACT>

This study contemplated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 and the literary character of the votive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 stored in the wooden seated statue of Amitabha in the main sanctuary of Suguksa temple located in Eunpyeong-gu, Seoul Metropolitan City. There were 24 different Buddhism manuscripts / printed books and 20 books of dharani in the statue at the Suguksa temple. The Buddhism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 include 7 books of Goryeo edition, 11 books of Joseon edition and 6 books of Yuan Boryeongjang edition. Most of them have been historically proven that they are the sole editions and they are introduced to us for the first time. This study found that the votive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 at Suguksa had been dedicated in 1239 when the statue was enshrined and during the two major repairs in 1388 and 1562.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uscripts / printed books and the enshrinement background of the statue draws attention; because most of them are printed edition dharani and Esoteric Buddhism scripture. Among the votive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 the temple-published Avatamska Sutra, Esoteric Buddhism scripture and Jeongchuk-type edition *Geumganggyeong Ogahae* (金剛經五家解) draw the attention of scholars.

Key words: Suguksa temple, Amitabha, votive relic found in statue, *Geumganggyeong Ogahae* (金剛經五家解), Shimwonsa temple, Choi Jong-Jun

1. 緒論

서울 은평구에 소재하는 수국사의 대웅전에는 나무로 만든 아미타불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수국사는 조선 세조가 일찍 죽은 세자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현재 소재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먼저 正因寺로 초창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한 동안 폐사 상태로 있었던 것을 중창하면서 현재의 사찰 이름으로 개칭한 조선 왕실의 원찰로써 기능한 사찰이다.

지난 2005년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불상의 개금을 위해 불복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직물류와 종이류 등 복장의식과 관련된 유물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이때 수습한 복장유물에는 복장의식과 관련된 후령통을 비롯하여 2차례의 개금 중수 시에 작성된 중수기 3점이 들어 있으며, 또한 다양한 직물과 종이유물이 수습되어 있다. 특히 종이유물에는 목판에 인쇄된 다양한 다라니와 불교전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자료는 불상의 최초 조성과 중수시기를 밝히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불상의 불복을 조사하고 제출한 보고서가 발행된 바 있는데,¹⁾ 당시 조사자는 불상의 특징과 복장물의 소개에 그치고 있어 복장전적의 서지적 성격이나 간행시기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국사 복장본은 대부분이 일반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유일본이거나 새로운 이판본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먼저 불상을 봉안하고 있는 수국사의 창건과 중창 배경을 살피는 한편으로 불상의 조성에 재정적으로 지원한 세력은 어느 가문인가를 밝혀서 과연 어느 시기에 어느 사찰에서 조성되어 현재의 사찰로 이운되어 왔는지 그 전후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불복에서 수습한 복장전적은 어떠한 전래 과정을 거쳐 어느 시기에 불복에 납입되었으며, 아울러 일정한 불교전적 분류표에 의거하여 분류하여 복장전적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1) 文明大, 『守國寺 高麗 木阿彌陀佛坐像·佛畫』(서울: 한국미술사연구소, 2006).

2. 守國寺의 沿革 및 木造阿彌陀佛坐像

2.1 수국사의 연혁

수국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삼각산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이다. 이 사찰은 1459년(세조 5) 어린 나이로 일찍 죽은 세자(후에 德宗으로 추존)의 극락왕생을 위해 세조의 명의로 세웠는데, 창건 당시에는 正因寺라는 사명으로 이름하였다. 세조는 1457년 8월 덕종이 죽자 이듬해 백성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검소하게 절을 지어 덕종의 넋을 위로할 것을 명하였기 때문에 착공 1년 만에 소규모로 완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절을 창건할 때 급히 지어져서 재목이 매우 좋지 못하고 쓰임새가 정밀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1471년(성종 2) 봄에 덕종의 모친 仁粹大妃(1437-1504)가 판내시부사 李孝智에게 중창할 것을 명하여 그 규모가 총 119칸에 이를 정도로 크게 중창되었다.²⁾

중창 당시 인수대비는 궁중에서 절약한 물품을 쌀과 베로 계산하여 內需司에 주어 경비에 보태 쓰도록 하였다. 이에 대왕대비도 동참하여 1471년 2월 공사에 착수되었는데, 공사에 국민을 강제로 부역시키지 말고 노역에 대한 품삯을 주도록 명하였다. 그 무렵 경기 지역에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다투어 공사에 참여하였다. 이 절의 중창은 화엄종의 고승 雪巖이 맡았는데, 사찰의 중창 규모가 奉先寺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다고 한다. 인수대비는 절을 운영하기 위해 특별히 미곡 100섬을 시주하고 사찰 집기 등을 여유 있게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사연으로 낙성을 위해 1472년 사월초파일에 낙성법회를 크게 개최했는데, 또한 이 무렵 법화경과 원각경 등 실로 방대한 대승경전이 대량으로 간행되었다.³⁾

그러나 인수대비의 중창 이후의 사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초창 이후 얼마되지 않은 1504년 화재가 발생하여 가람은 불타버리고 임난 이후에는

2) 金守溫, 『正因寺重創記』, 『拭疣集』.

3)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서울: 범우사, 1990), 168-170.

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의 폐사 상태로 보인다. 그런데 정인사의 능침 기능을 이은 것으로 보이는 수국사의 존치 사실이 영조 후기 1761년의 기록에 보이고 있다.⁴⁾ 이후 조선후기 지리서에 수국사의 존재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조선전기에 왕실이 보여 준 관심이나 지원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정조 무렵에는 절을 지키는 승려도 없는 상태로 방치되었다.

그리하여 정조는 말년에 수국사에 거주하는 승려들의 부역을 면제하는 명을 내려 겨우 齋享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세는 더욱 퇴락하여 고종 무렵에는 폐사되었는데, 근세에 들어와서 1900년 초 月初 巨湍이 황실의 축원을 위해 고종의 지원을 받아 현재의 위치로 옮겨 50여 칸 규모로 다시 중창하였다.⁵⁾ 그 후 한국전쟁으로 대웅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1995년 주지 韓慈容이 법당의 내·외벽을 금으로 장엄한 황금보전을 신축하여 오늘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수국사의 전신인 정인사는 조선전기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크게 번창하여 임란 이전까지 존치되었으며, 그 후 영조연간에 정인사의 능침 기능을 이은 수국사가 사명을 바꿔서 등장하였으나 겨우 명맥을 유지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절에는 고려 후기에 조성한 목조아미타불좌상이 보존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2.2 목조아미타불좌상의 조성 및 중수

수국사 대웅전에는 목조아미타불좌상 1구가 다른 불상과 함께 봉안되어 있다. 이 아미타불상은 전체적으로 다소 건장하게 보이며 肉髻가 큼직한 편으로 중간 계주가 높게 솟아 있고 나발은 작고 촘촘하게 표현되어 있다. 上体는 당당하면서도 건장한 편이고, 어깨가 팽팽하고 볼록하며 U자형으로 터진 가슴에 둥근 양쪽 젖 가슴 사이로 둥근 배가 표현되어 있다. 手印은 오른손을 들어 시무외인을 하고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무릎위에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4) 『承政院日記』 영조 37년(1761) 4월 26일 기사.

5) 정인사와 수국사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다음의 논문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손신영, “수국사의 역사적 추이와 가람배치,” 『강좌미술사』 30호(2008), 285-319.

있는 下品中生印을 짓고 있다. 通肩衣의 불의는 상의 위에 大衣를 걸친 2중 착의법으로 오른쪽 어깨 위에 반달형으로 대의가 걸쳐져 있고, 왼쪽 어깨의 3가닥 옷 주름과 그 밑에서 어깨 전체에 걸쳐 내려진 타이트한 10가닥 이상의 옷 주름과 이 주름이 팔꿈치 위에서 ㄷ형을 이룬 주름, 왼 무릎 위에서 아래로 내려진 연일 모양의 옷자락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⁶⁾

이러한 불상의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수국사 불상은 1274년과 1280년에 중수한 개운사와 개심사의 목조아미타불상과 매우 흡사하며, 또한 1200년경 전후에 조성한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상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상 등 12-13세기에 조성된 아미타불상과 친연성이 강하게 보이는 동일 계통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수국사 아미타불상에서는 처음 조성한 이후 두 차례 개금 중수한 시기에 그 사실을 기록한 중수기 3건이 발굴되어 불상의 내력을 살피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불복에서 다수의 전적류와 다라니류 도합 44건이 수습되어 불상의 조성 및 중수시기를 고증하는데 참고가 되고 있다.

먼저 다라니에는 조성 시기 및 주체에 관련된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즉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己亥十月日 侍中 崔宗峻”이라는 기록이 새겨진 다라니 1건이 보이고 있다. 이 내용은 기해년 10월에 시중 최종준이 당시 불상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된다. 최종준은 당대 명문가인 철원(혹은 東州) 최씨 가문 출신으로 개국공신 최준옹의 6대손이자 崔惟淸의 손자이며, 고려 무신정권하에서 과거에 급제한 이후 문하시중을 지내고 1249년에 죽은 인물이다. 따라서 ‘己亥’년은 바로 그가 문하시중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고려 고종 26년인 1239년에 해당된다. 그는 지금 수국사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을 조성할 때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국사 아미타불상은 철원 최씨 가문의 시중 최종준 등이 소요 비용을 내어 1239년 무렵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과 함께 삼존불로 조성하였다.

이때 조성한 삼존불은 과연 어느 지역의 사찰에서 만들어졌을까. 고려 고종

6) 문명대, “守國寺 高麗 木阿彌陀佛坐像의 研究,” 『미술사학연구』 255(2007), 45-46.

연간에 최종준의 본향인 철원지방에 소재하는 사찰 중 거점 사찰은 深源寺가 우선 주목된다.⁷⁾ 이를 입증할 근거는 불복에서 수습한 전적 중에도 2차 중수 시에 심원사 판본과 심원사 승려가 시납한 경전이 다수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수국사 불상은 1239년에 철원 심원사에서 조성된 이래 서울 수국사로 이운되기 이전까지 줄곧 심원사에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건의 중수기를 살펴보면, 불상을 처음 조성한 이후 150년이 지난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즉위했던 1389년에 1차 중수가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삼존 불을 함께 중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1차 중수기를 통해 1239년 조성 당시에 삼존불 형식으로 갖추어 만들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건의 2차 중수기를 통해 1차 중수 이후 173년이 지난 조선시대 명종 17년인 1562년에 재차 개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차 중수에는 1차와는 달리 무량수불 1구만 개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 사이에 관음과 대세지보살 2구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심원사의 사적을 보니 1차 중수 이후 멀지 않은 시기인 조선 태조 2년(1393)에 사찰에 큰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아마 이때 소실되었을 것이다. 그 후로도 ‘擁正 4년(1726)’ 목서가 있는 <十王經>이 보이고 있고 근대기에 제작된 거울과 사리병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150년 단위로 2회 정도 중수가 더 추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阿彌陀佛 腹藏의 印刷物 收拾現況

조선 초기에 능침사찰로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수국사에는 강원도 철원 보개산에 소재하였던 심원사로부터 목조아미타불좌상 1구가 이운되어 대웅

7) 深源寺는 본래 조선 사찰본에는 江原道 鐵原 寶蓋山에 소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의 사찰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중창하였다. 또한 철원의 서북쪽 황해도 황주의 慈悲山에도 寺名이 동일한 심원사가 소재하고 있다.

전에 봉안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11월에 불상의 개금을 위해 수국사의 의뢰로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사전에 불상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직물류와 지류 등 다량의 복장유물을 수습하였다. 당시 수국사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수습한 복장유물 중에 지류문화재는 전적류 24점, 다라니류 20점, 중수기 3점 등 모두 47점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종합한 전체적인 수습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수국사 아미타불의 복장 지류문화재 수습현황

시대/구분	전적류	다라니류	중수기	총 계
고려시대	7점	20점	1점	28점
조선시대	11점		2점	13점
중국원대	6점			6점
합 계	24점	20점	3점	47점

수국사 아미타불 불복에서 수습한 지류복장유물은 모두 47점으로 파악되었다. 47점의 유물에는 고려시대 유물이 27점, 조선시대 유물이 14점, 그리고 중국 원대 유물이 6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위의 표에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불교전적류와 인본다라니류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3.1 佛教典籍類

아미타불 불상에서 수습된 복장전적은 대부분 불교경전으로 고려 및 조선시대 간행된 목판본과 중국 원나라에서 간행된 대장경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불교전적을 대상으로 간행 시대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서지적 특징을 기술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수국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 불교전적

구분	명칭	수량	관종	크기	시대	비고
고려본	大方廣佛華嚴經(晉本) 卷36	1첩	목판본	外: 32.0×12.4cm 內: 23.8×12.4cm	11세기	표지탈락 일부에 角筆
	妙法蓮華經 卷6	1첩	목판본	外: 25.1×8.7cm 內: 18.8×8.7cm	12세기	뒤표지탈락
	密教大藏 卷9	1첩	목판본	外: 29.8×16.0cm 內: 21.2×16.0cm	13세기	刻手, 教師福泉 住持學林施納
	佛說摩利支天菩薩陀羅尼經	2첩	목판본	外: 20.5×9.0cm 內: 14.6×9.0cm	13세기	2첩을 1첩으로 製冊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1첩	목판본	外: 24.8×9.0cm 內: 17.1×9.0cm	13세기	皇帝陛下... 性仁施納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卷上	1첩	목판본	外: 24.8×8.8cm 內: 16.5×8.8cm	13세기	뒤표지탈락 표지 性峻 墨書
조선본	金剛般若波羅蜜經 卷下	1책	활자본	外: 36.6×24.5cm 內: 27.6×18.9cm	세조3년 (1457)	大字: 丁丑字 中字: 初鑄甲寅字
	蒙山和尙法語略錄	1책	목판본	外: 29.6×19.8cm 內: 21.5×15.6cm	嘉靖4年 (1525)	深源寺板 綠絹表紙
	妙法蓮華經(全)	2책	목판본	外: 28.0×16.2cm 內: 21.5×13.6cm	세종4년 (1422) 大慈庵板	涵虛堂 跋 能惠施納
	妙法蓮華經(全)	2책	목판본	外: 30.2×19.0cm 內: 21.3×14.2cm	嘉靖18年 (1539) 深源寺板	後印墨書(1541) 性仁誌記(1551) 紺絹表紙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1책	목판본	外: 29.0×19.3cm 內: 20.8×15.7cm	嘉靖7年 (1528) 奉恩寺板	後印墨書(1541) 熙運施納(1562)
	蓮經別讀 合: 華嚴釋題, 自警	1책	목판본	外: 26.8×17.0cm 內: 20.8×16.5cm	嘉靖3年 (1524) 雙龍寺板	寫經表紙 性仁比丘 合: 華嚴釋題
	五大眞言 合: 靈驗略抄	1책	목판본	外: 25.2×17.1cm 內: 18.5×13.2cm	成化21年 (1485)	合: 靈驗略抄 學祖 跋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1책	목판본	外: 33.7×23.5cm 內: 20.5×17.2cm	萬曆5年 (1577) 普願寺板	擁正4(1726)年 墨書記
	地藏菩薩本願經 卷中	1첩	목판본	外: 32.1×18.8cm 內: 22.3×18.8cm	15세기	嘉靖42(1562)年 熙運施納
원본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17,18,88,144,145,146	6첩	목판본	外: 30.4×11.3cm 內: 24.7×11.3cm	元代	住持戒祥 普寧藏

<표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 복장본은 16관종에 24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고려본은 6종 7첩, 조선본은 9종

11책, 그리고 원나라 보령사에서 조성된 사찰판 대장경 1종 6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복장본을 간행방식으로 구분해 보면, 금속활자본은 1종만 포함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모두 목판본이다.

3.2 印本陀羅尼類

수국사 아미타불 불복에서 다라니 20점이 수습되었다. 이들 20점의 다라니는 대부분 다른 복장유물에서 발견되지 않은 유일 다라니인데, 이들의 형태적 특징과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수국사 아미타불상의 복장 인본다라니

명칭	수량	크기	시대	비고
金剛界曼荼羅(1)	1장	外: 32,5×33,2cm 內: 10,0×10,5cm	高麗	唯一
金剛界曼荼羅(2)	2장	外: 32,0×32,8cm 內: 19,0×19,5cm	"	唯一
胎藏界·金剛界兩部曼荼羅	4장	外: 7,5×13,2cm 內: 5×5,5cm	"	唯一 胎藏界/金剛界曼荼羅 合印
佛頂心呪曼荼羅	1장	外: 32,5×32,8cm 內: 19,0×22,5cm	"	唯一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真言 (合部二輪)	1장	外: 32,0×34,5cm 內: 28,5×30,0cm	"	唯一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真言 (合部二輪)	1장	外: 33,5×38,3cm 內: 25,0×26,0cm	"	唯一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真言 (四輪合印)	4장	外: 39,5×34,2cm 內: 32,5×31,5cm	"	唯一 佛腹藏香徒板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真言	3장	外: 17,0×20,5cm 內: 13,5×13,5cm	"	唯一 己亥十月日侍中崔宗峻 印施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真言	1장	外: 36,5×35,0cm 內: 17,0×15,5cm	"	唯一
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1장	外: 16,5×29,8cm 內: 16,0×19,5cm	"	重複印出 資料 있음
大方廣菩薩藏經中文殊師利根本 一字陀羅尼經	1장	外: 59,0×14,5cm 內: 53,5×12,5cm	"	唯一 납장(一字 二丈)

아미타불 불복에서 수습된 다라니류는 모두 20점에 이르고 있는데, 주로 <全身 舍利寶篋印陀羅尼>와 <金剛界曼荼羅>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모두 목판에 판각하여 인쇄한 자료로 현재 여러 불상에서 수습한 자료 중에 거의 중복되지 않은 유일한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다라니류 20점은 모두 불상 조성시기에 처음으로 充塡을 목적으로 납입한 자료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중에는 ‘佛腹藏香徒板’과 ‘己亥十月日侍中崔宗峻印施’라는 판각 기록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는 불상의 조성 주체와 그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주목되는 내용이다. 특히 간기 자료는 ‘己亥’라는 시기와 ‘崔宗峻’이라는 주체를 확인할 수 있어 불상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불상은 기해년에 최종준의 발원을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기해년은 어느 해일까. 대체로 최종준의 생애 말년에 해당될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사에 최종준의 졸년이 1246년 8월로 확인되고 있다.⁸⁾ 이로 보아 ‘己亥’는 고려 고종 26년으로 서기로는 1239년에 해당한다. 당시는 崔怡를 수반으로 무신정권이 집정하던 시기이며, 한편으로는 몽고군의 침입으로 왕실과 정부는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하고 본격적으로 항전하던 때이다. 또한 무신정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몽고군에 의해 소실된 대장경을 한창 복원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4. 腹藏典籍의 書誌的 檢討

4.1 고려시대 불교전적

수국사 아미타불 불복에서 수습한 복장전적 중에 고려시대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불경은 모두 6종 7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불교전적은 대부분 처음 소개되는 판본으로 그 서지적 특징은 <표 4>와 같다.

8) 『고려사절요』 제16권, 고종 33년(1246) 8월.

<표 4> 고려시대 불교전적의 서지적 특징

경명	권차	권수제	판수제	행자수	장정	비고
大方廣佛華嚴經(管本)	卷36	3행	晉經 第三十六 二幅	24행17자	折帖裝 表紙缺	寺刊本, 音義, 黃楮紙, 角筆
妙法蓮華經	卷6	3행	張次 79-94	42행17자	折帖裝 紺表紙	宋板系, 音義, 黃楮紙
密教大藏	卷9	3행	第九卷 第二丈	15행15자	包背裝 紺表紙	梵漢並記, 函次, 音義, 白如刀(張9)
佛說摩利支天菩薩陀羅 尼經	單	2행	支天經 二	25행13자	折帖裝 紺表紙	黃楮紙, 題簽, 秩號 梵漢並記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 陀羅尼經	單	2행	長 二	30행17자	折帖裝 橡表紙	黃楮紙, 題簽 性仁施納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 羅尼經	卷上	1행	二丈	30행17자	折帖裝 橡表紙	梵漢並記 표지 性峻 墨書

<표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수국사 아미타불상에서 수습한 고려본 불교전적은 주로 대승경전과 밀교경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승경전에는 화엄경과 법화경 2종이 수습되었는데, 이들 불경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판본으로 유일본이다.

수국사본 화엄경은 앞뒤의 표지는 탈거된 상태이며, 권수의 일부분이 훼손된 상태이다. 권36은 전체 18장으로 이어져 절첩장으로 장황하였으며, 각 장은 24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경문에는 간혹 각필이 보이고 있고 권말에는 음의가 수록되어 있다. 판식 상의 세부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권수제는 경제와 품제가 구분되어 있고 그 사이에 東晉의 佛馱跋陀羅가 한역한 역자표시가 기입되어 있어 모두 3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수제는 점편되어 일부만 보여 분명하지는 않으나 장2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晉經 第三十六 二幅’와 같다.

일반적으로 화엄경의 경우 권수제와 판수제의 형식은 우리나라에서 10세기를 전후로 간행된 고판본을 식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권수제가 3행으로 되어 있어 대체로 11세기 이후에 간행된 판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판수제는 11세기 이후에 간행된 판본에서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권36과 같고

다른 하나는 기림사본 권35의 경우 ‘罽三十五 二’와 같은 형식이다. 이는 11세기 이전 간본으로 추정되고 있는 개운사본 진본 권2에 보이는 ‘罽本經 第二卷 第二張’의 관수제 형식과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⁹⁾ 이러한 관수제의 특징으로 보아 그 기재 방식이 초기에는 구체적으로 기입하였으나 후기로 가면서 생략되어 단순히 식별의 기능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국사본은 11세기 무렵에 판각된 사간본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진본 화엄경(권36)은 종이의 지질이 다른 판본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판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지질은 일반 인경지 보다는 약간 두텁고 진한 갈색을 보이고 섬유질이나 紙簾이 전혀 보이지 않아 마치 돈황 사본에 많이 보이는 硬麻紙와 흡사하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러한 지질상의 특이점으로 보아 수습 당시에는 13세기 무렵 원나라에서 인출한 판본으로 판단하였으나, 근래 국내에 유전되고 있는 모든 화엄경의 판식 상 특징을 조사 분석한 결과 고려본의 요소가 다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¹⁰⁾

법화경 또한 지질이 상기의 화엄경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국내전본과는 매우 달라서 언뜻 보기에 송판본과 흡사하다. 전체적으로 결락된 뒤표지를 제외하고 훼손된 부분이 없이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절첩장 형태로 장황하고 표지는 紺紙로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현전본에서 그다지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사례이다.¹¹⁾ 전체는 15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장은 42행17자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제는 3행이고 판수제는 장차만 기재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음의가 부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1세기 이하로 내려 갈 수는 없을 것이다. 17자본계통의 현전하는 송판본은 대부분 경문에 표점이 들어 있으나, 수국사본에는 표점은

9) 宋日基, “開運寺本 罽本華嚴經 卷33의 書誌의 研究,” 『書誌學研究』 제51집(2012. 6), 368-371.

10) 유부현은 수국사본 진본 권36을 11세기 간본으로 확정하고 후에 제조본의 저본으로 편입된 사간본 계통의 초간본으로 판단하고 있다(유부현,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1호(2013. 3), 261-277).

11) 이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감지표지는 11세기 후반에 인출된 송본 <화엄경소>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정원 법사가 대각국사에게 보낸 경관에서 인출한 판본으로 국내에도 몇 부가 남아 있다.

없다. 이와 동일한 판식의 특징을 보이는 17자본은 봉림사에 권1이 소장되어 있고 권7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지질은 아주 다르다.¹²⁾

그리고 『密敎大藏』이란 밀교대장경이 처음으로 출현하였다.¹³⁾ 그 동안 기록 상으로는 고려 충숙왕 이전 시기에 90권본이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¹⁴⁾ 조선 세종 23년(1424)에 왜인이 대장경판을 청구하자 세종은 대장경판 대신 이 <밀교대장경판>과 <주화엄경판>을 함께 보내 준 사실이 있었다.¹⁵⁾ 이외에 다른 밀교대장이 판각 또는 인경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국사 아미타불에서 수습한 판본은 기록 상 고려 충숙왕 이전에 간행되었다는 판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¹⁶⁾

수국사 복장본은 밀교대장 권9의 한 책으로 절첩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외형의 표지는 포배장 형태를 보이고 있다. 권수제를 살펴보면, 먼저 제1행에 ‘密敎大藏卷第九’라 하여 밀교 경전을 총칭하는 총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전체 권수에서 일부를 나타내는 卷次가 기입되어 있다. 이로 보아 만약 이제현이 서문에서 밝힌 90권본 밀교대장경과 동일본이 맞는다면, 그 중 권9의 1권에 해당된다. 제2행에는 ‘持心梵天所問經四卷’이라는 경제가 보이고 그 아래에 ‘賴’라는 函次가 기입되어 있다. 제3행에는 ‘西晉月氏三藏竺法護譯’이란 역자가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전은 월씨국에서 온 축법호가 한역한 소문경 4권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구마라집이 한역한 ‘思益梵天所問經’ 4권, 보리유지

12) 그 외에 기림사에는 도난 이후 회수한 전적 중 아직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본에 권수에 변상도가 있고 권말에 散騎常侍廉의 발원문이 묵서되어 있는 판본이 보존되어 있는데, 전 7권 중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로 동일 계통의 고려본일 가능성이 높다.

13) 그 외에 권61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호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천혜봉, 『고려 전적의 집산에 관한 연구』, 고려시대연구 2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384).

14) 이제현이 금서밀교대장경의 서문을 작성한 연대가 충숙왕 15년(1328)이므로 이보다 앞선 13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李齊賢, 『金書密敎大藏經序』, 『益齋亂藁』 卷5).

15) 『세종실록』 권23, 세종 6년(1424) 2월 7일.

16) 권근의 『陽村集』에 <밀교대장경> 1부를 德安殿에 봉안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덕안전에 봉안한 密藏은 <세종실록>에 일본에 하사하였다는 경관에서 印經한 것으로 보인다(權近, 『陽村先生文集』 卷13, <記類條>).

가 한역한 ‘勝思惟梵天所問經’ 권6, ‘楞伽經’ 제8, 실차난타가 한역한 ‘大乘入楞伽經’ 권6, ‘大雲輪請雨’ 권상, ‘大雲經請雨品’ 제64 등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는데, 경제 아래에 ‘及’에서 ‘大’에 이르는 함차가 기입되어 있다. 판수제는 ‘第九卷 第二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장9에는 ‘白如’라는 각수의 이름이 보이고 있어 권9는 각수 백여가 판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권말에는 독음이 부기되어 있으며, 그 끝부분에 ‘教師福泉 住持學林施納’이란 묵서 기록이 보이고 있다. 경문은 먼저 범자로 쓰고 다음 행에 한자로 표기하고 있는데, 각 장은 15행 15자씩 배자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고려본에는 지천경 등 밀교계통 경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가 처음 소개되는 판본으로 유일본이다. 먼저 ‘支天經’의 온전한 이름은 ‘佛說摩利支天菩薩陀羅尼經’으로 이를 축약한 경명이다. 절첩장 형태로 장책하였는데, 전체 분량이 4장에 불과한 소량이라서 동일한 경전 2권을 한 첩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질이 상기의 화엄경과 범화경 등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표지 역시 쪽물을 드린 감지로 만들었다. 표지의 중앙에는 직첩 금은니로 쓰지 않고 별도로 인쇄한 제침이 있는데, 제침은 쌍선의 테두리를 두고 그 안에 鶴立蛇橫 표시 아래 경명이 인쇄되어 있다. 이와 동일한 표지 형식은 보물 937호로 지정되어 있는 『자비도량참법』(권10)과 해인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강경 등에서 보이고 있는데, 정확한 간행연대를 알 수 없으나 대략 고려 13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

각 장은 5절로 접혀 있으며, 한 장은 25행 13자로 배자되어 있다. 판수제는 2행으로 제1행의 경제 아래에 ‘묘’이란 일종의 질호가 기입되어 있으며, 제2행에는 역자 不空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역자표시의 맨 앞에는 출신지역을 기재하는데 비해 ‘大興善寺’라는 사찰명이 보이고 있어 그가 머물면서 한역한 사원이 아닌가 한다. 판수제는 점련부분에 ‘支天經 二’로 경명과 장차만 기재되어 있다. 경문은 주로 한자로 쓰고 있으나, 다라니 주문부분은 먼저 범자로 쓰고 다음 행에 한자로 병기하였다. 권말제 다음 행에는 ‘唵摩利支婆訶’라는 진언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하루에 108번 혹은 800번 또는 8000번

이를 염송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장수경이 고려본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불경은 근래 동학사 삼세불을 비롯해서 새로운 판본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나 수국사본은 아직까지 동일본이 없는 유일본이다. 현존본은 대략 15자본과 17자본 두 계통의 판본이 유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국사본은 17자본이다. 17자본은 1342년 간본 등 5종이 현전하고 있으나 모두 서로 다른 이판본이다. 특히 권수에 변상도가 수록되어 있는 판본은 17자본 중 유일한 것으로 전혀 소개된 바 없다. 지질 또한 상기의 지질경과 매우 흡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같은 시기에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권말에는 권말제 다음 행에 ‘伏爲 皇帝陛下□□億載’라는 축원문 앞부분 만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불경은 원나라 간섭기에 판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권말제가 ‘佛說長壽命經’으로 기재되어 있어 완전한 경제를 쓰지 않고 축약한 경명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13세기에 판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뒤표지 좌측 하단에 ‘性仁施納’이란 묵서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性仁은 심원사 스님으로 1562년 불상 중수 당시에 많은 불서를 시납한 인물이다.

끝으로 고려본에는 불정심다라니경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불경은 아쉽게도 후반부 일부가 결락되어 있어 정확한 간행시기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장책이나 지질 등 전체적인 특징이 앞에 소개한 장수경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동일한 시기에 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 중기 간본은 호신용으로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주로 소형본으로 제작한 판본이 주로 보이고 있는데, 이에 비해 수국사본은 판고가 17cm에 14자가 배자되고 독송에 적합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상 수국사 아미타불에서 수습된 고려본은 대부분 처음으로 출현하거나 새로운 이판본으로 밝혀져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그간 기록상으로 알려진 밀교대장은 조선 초기 세종이 왜인에게 하사한 경판에서 인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의미가 있겠다. 다만 이 경판은 일본에 이운된 이후 일본의 상국사에 보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화재로 주화엄경판과 함께 소실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판본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체적으로는 인경에 사용한 종이의 지질상의 특이함과 장책의 특징 등이 매우 주목된다 하겠다.

4.2 조선시대 불교전적

수국사 아미타불좌상에서 수습한 조선본은 모두 9종 12책으로 조사되었다. 조선본은 대부분 목판본이 차지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금속활자본 1종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되고 있다. 조선본의 상세한 서지적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 조선시대 불교전적의 서지적 특징

경명	권차	판수제	행자수	장정	시대	비고
金剛般若波羅蜜經	卷下	金剛經下 一	9행14자	線裝	세조3 (1457)	丁丑字本, 法施之寶黃楮紙, 金守溫跋
蒙山和尚法語略錄	單	法語 一	8행17자	包背裝 麻表紙	嘉靖4 (1525)	深源寺板 刊經都監本覆刻
妙法蓮華經	全	法一 一	10행20자	線裝 紙包背	세종4 (1422)	大慈庵板, 涵虛堂跋 能惠施納, 表紙-元大藏經
妙法蓮華經	全	法一 一	10행20자	線裝 麻表紙	嘉靖18 (1539)	深源寺板, 成達生系, 後印墨書 (1541), 性仁誌記(1551)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單	藥師經 一	7행15자	包背裝 麻表紙	嘉靖7 (1528)	奉恩寺板, 後印墨書(1541), 熙運施納(1562)
蓮經別讚	單	蓮經讚 一	8행16자	線裝 寫經紙	嘉靖3 (1524)	雙龍寺板, 性仁比丘 合: 華嚴釋題, 自警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單	預修文 一	8행16자	線裝	萬曆5 (1577)	普願寺板 擁正4(1726)墨書
五大真言	單	五大 一	9행16자	線裝	成化21 (1485)	合: 靈驗略抄 學祖 跋
地藏菩薩本願經	卷中	地中 一	5행17자	包背裝 麻表紙	세종30 (1448)	嘉靖42(1562)墨書, 熙運施納, 釋音

<표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간행된 판본은 모두 9종 12책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전적은 대부분 1562년 아미타불의 제2차 중수 시에 시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물론 간행 시점이 1388년 1차 중수 이후이나 또한 여러 전적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납자와 관련된 목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주목되는 판본은 조선본의 대부분이 목판본인데, 유일하게 금속활자로 인출된 금강경오가해이다. 이 금강경은 세조가 1457년 정축년에 일찍 죽은

의경세자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본인이 큰 글자의 자본을 직접 써서 주성한 丁丑字로 경문을 대자로 찍고, 여기에 오가의 주해문은 이미 주조해 둔 초주갑인자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국사본은 완질이 아닌 권하 1책만 발견되었는데, 현재 계명대도서관에 유일하게 권하 1책이 소장되어 있고, 권상은 성암문고에 진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수국사본의 권수에는 『法施之寶』라는 어보가 安寶되어 있는데, 이와 동일한 어보가 고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초주갑인자본 <證道歌註解> (1457年刊)에서도 보이고 있어 주로 덕종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반사한 불경에 찍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권말에는 세조의 발문을 비롯하여 金守溫, 韓明澮, 曹錫文, 任元濬 등 여러 신하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이 책의 간행 사실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 책 외에 정축자로 인쇄한 전적은 금강경삼가해가 유일한 것으로 보아 세조가 특별히 불경을 인쇄하기 위한 의도로 주조한 금속활자임을 알 수 있다. 지질 또한 세조대에 인경에 주로 사용한 고정지가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진한 갈색으로 염색되어 있다.

다음으로 황주 심원사에서 개판한 판본 2종이 조선본에 포함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원나라 선승으로 고려와 긴밀하게 교류한 몽산화상의 『法語略錄』으로 1525년에 황주 자비산 심원사에서 개판되었다. 이 심원사본의 모본은 간경도감에서 국역하여 간행된 이래 1517년(正德 12)에 충청도 連山の 孤雲寺에서 개판된 사실이 있어 이를 저본으로 판각한 것이다. 특이하게 표지는 청색 물로 염색한 마포로 만들었는데, 외형은 마치 포배장처럼 보인다. 또한 봉은사판 약사경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장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지질은 함께 수습된 『연경별찬』과 심원사판 법화경, 그리고 봉은사판 약사경의 인경에 사용된 지질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들 함께 1541년에 後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⁷⁾

17) 태종과 그 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의 동일한 형식의 판본이 보물93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다만 판수제 표시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른 이판본으로 보인다(『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 1987년 지정편』(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220-221).

다른 판본은 1539년에 황주 심원사에서 개관한 법화경인데 불상 중수 시에 시납하기 위해 2년 후인 신축년(1541)에 다시 인출하였다. 당시 불상의 중수를 주관했던 심원사 스님 성인 비구가 이러한 사실을 권수의 내지에 기록해 두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余生取釋, 不識文字, 亦不知佛理, 恰如面牆無異, 維歲在辛亥春, 有道者性浩, 其名者特, 發更金之志, 自然覺合, 而就越明年秋粧修如故, 余而慕之其緣, 以取蓮經別讚·妙法[法]蓮華經, 白紙三卷以募, 因弘於生異, 人壽過百年而傳永劫, 長爲弟子不離左右安 然, 授記於意切切云爾, 性仁比丘

그런데 불경은 인출한 시기와 性仁이 그 내력을 쓴 시기가 辛丑년(1541)과 辛亥년(1551)으로 무렵 10년의 시차가 보이고 있다. 또한 2차 중수한 시기가 1562년으로 20년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시차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매우 곤란한 문제이다. 기록에 보이는 『蓮經別讚』과 법화경은 백지 3권을 준비해서 인경한 것으로 실제 지질이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전적은 장책한 표지가 다른 전적과 달리 특이한데, 『연경별찬』은 사경의 표지를 다시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법화경은 감색 물을 드린 麻布를 사용하여 내 표지 위에 다시 둘러 쓴 형태로 마치 포배장처럼 보인다. 이상의 여러 사실로 보아 성인 비구 등은 불상의 중수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법화경에는 심원사판 외에 1422년에 고양의 대자암에서 개관한 판본이 포함되어 있다. 이 대자암판에는 권말에 함허당 득통과 변계량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간행사실을 알 수 있는데, 성령대군의 장인인 成抑이 세종의 모친인 원경왕후와 이른 나이에 흥역으로 죽은 세종의 동생 성령대군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大慈庵에서 성달생과 성개가 쓴 정서본을 바탕으로 판각 인경한 것이다. 대자암본은 비교적 현전본이 여러 질이 남아 있는데, 수국사본은 전 7권 2책이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초간본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높다. 이 중 권하(권4-7) 1책은 표지가 불상에서 함께 수습한 원나라 보령사판 대장경의 인경지와 표지를 이용하

여 보수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 『연경별찬』은 한때 설잠 김시습의 새로운 저술로 주목된 바 있었는데, 이 책에는 이외에도 <華嚴釋題>가 합철되어 있어 그의 또 다른 저작으로 보이며, 또한 <自警序>는 野雲의 저술이다. 제목에 보이는 ‘蓮經’은 妙法蓮華經을 줄인 말이고 ‘華嚴’은 大方廣佛華嚴經을 축약한 이름이다. 따라서 『연경별찬』은 법화경 28품에 讚을 달고 頌으로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엄석제는 문자 그대로 ‘大方廣佛華嚴經’ 7자의 대의를 간명하게 풀이한 내용이다. 설잠은 선의 입장에서 법화와 화엄 사상의 대의를 밝혀 을 불조의 종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책은 간기를 통해 1524년 경상도 문경의 地華山 雙龍寺에서 개관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관하본은 壯印 비구가 쓰고 信草가 관각하여 信堂이 간행하였다. 그 후 이 책은 1546년에 황해도 송덕산의 귀진사에서 다시 간행된 적이 있으나, 현재 규장각, 동국대, 범어사 등에 소장되어 있을 뿐 그 전본이 매우 희귀한 실정이다. 뒤표지 내지에 ‘性仁比丘’라는 목서 기록으로 보아 이 책은 그가 불상을 중수할 때 시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인비구 외에 1562년 불상을 중수할 때 熙漚이 시납한 사실이 약사경과 지장경에서 보이고 있다. 이들 불경은 모두 연록색과 검정색으로 염색한 麻布로 장황한 것으로 보아 희석이 불상에 시납할 의도로 준비한 성물로 생각된다. 약사경은 권말의 刊記와 後印 목서기를 통해 1528년에 경기도 광주의 봉은사에서 개관한 관목에서 1541년에 화주 法心이 주관하여 심원사에서 후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질이 심원사판 법화경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1541년에 함께 다시 인경한 것이다. 그러나 지장경은 지질이 고졸한 것으로 보아 오래전에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경전으로 보인다. 지장경은 일반적으로 상중하 3권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수국사 복장본은 그 중 권중의 1책만 수습되었다. 다행히 권중의 말미에 대시주자로 효령대군과 안평대군이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姜碩德과 趙德生 등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시주자 강석덕은 1447년에 개성유수로 임명된 사실이 있고 안평대군과 함께 몽유도원도에 찬시하였으며, 조덕생은 1453년 계유정란 때 안평대군 등과 함께 사사된 인물이다. 이러한 사실

로 보아 이 책은 강석덕이 개성부 留守로 임명된 직후인 1448년 전후로 개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섯 종류의 밀교 진언을 수록한 『오대진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밀교의 경전인 <大悲心大陀羅尼> · <神妙章句大陀羅尼> · <大隨求大明王大陀羅尼> · <佛說大佛頂陀羅尼> · <佛頂尊勝陀羅尼> 등 5종의 다라니가 차례로 수록되어 있는데, 먼저 진언을 梵字로 적고 한자의 음역을 언문으로 병기하고 있다. 권말에 學祖가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인수대비의 명에 따라 중국에서 입수한 진언집을 저본으로 일반 백성들이 진언을 쉽게 익혀 암송할 수 있도록 범문을 국한문으로 병기하여 간행하였다고 한다. 뒤 부분에 한문본 『靈驗略抄』만 합철되어 있고 언해본은 없는데, 본래 상원사의 文殊童子像에서 수습한 복장본에는 이를 한글로 이해하고 乙亥小字로 인출한 별도의 언해본이 합철되어 있다. 한문본 『靈驗略抄』의 말미에는 1485년(성화 21)에 學祖가 쓴 발문이 첨부되어 있어 初刊 시기를 알 수 있으나, 수국사본은 후에 다시 인출한 후쇄본이다.

수국사 복장본에는 유일하게 1562년 불상을 중수할 때 시납되지 않은 전적 1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충청도 서산의 보원사에서 1577년에 판각되어 후쇄한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이다. 이 책은 뒤표지의 내지에 ‘擁正4(1726)年’의 연대가 墨書되어 있어 1562년 제2차 중수 이후 160년이 흐른 영조 대에 3차 중수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이상으로 수국사 아미타불상에서 수습한 조선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간행된 판본은 1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제2차 불상 조성 시기에 시납된 전적으로, 주로 性仁 · 熙暹 · 能惠 비구 등이 봉안한 것이다. 조선본 중에는 유일하게 정축자로 인경한 금강경오가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세조가 사찰 등에 반사하면서 안보한 「法施之寶」라는 내사인이 찍혀 있어 더욱 주목된다 하겠다. 많은 전적을 시납한 성인 비구는 불상의 중수를 위해 오래전부터 사전에 준비해 왔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4.3 元代 普寧寺大藏經

수국사 아미타불상에서는 다른 복장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원대에 간행된 대장경 6첩이 수습되었다. 이 대장경은 원나라 白雲宗團의 지원을 받아 항주의 普寧寺에서 至元 연간에 조성한 이른바 私家板 <普寧藏>으로 온전한 명칭은 ‘杭州路餘杭縣南山大普寧寺大藏經’이다. 당시 백운종은 원대 불교의 매우 번성했던 한 종파였는데, 大明慶寺의 주지를 맡은 寂堂 思宗은 남송 때 조조한 <思溪藏>이 병화로 인해 전소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새로 대장경을 조성할 것을 발원했다. 강남지역 백운종 신도들의 시주를 받아 조성비용을 모으고, 제자 도안과 대장경판의 조성을 계획하였다. 이에 보령사에서는 대장경의 조조를 주관하는 大藏經局을 설치하여 지원 14년(1277)에 착수한 이후 14년이 걸린 지원 27년(1290)에 완성하였다.¹⁸⁾

이처럼 <보령장>은 남방 계통의 <사계장>을 저본으로 다른 대장경과 대교하여 조판하였는데, 전체 분량은 591합, 1,532부, 5,996권에 이른다. 보령장의 판식은 각 장마다 5절씩 접어 절첩장 형태로 만들었으며, 1절은 6행으로 한 행에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수국사 복장에서 수습한 원판 대장경은 『阿毗達磨大毗婆沙論』으로 권17, 18, 88, 144, 145, 146에 해당하는 6권이며, 합차번호는 造7-8, 退8, 靜4-6에 대응한다. 이 중 권17의 표지에는 ‘中德前光明住持戒祥’이란 목서가 보이고 있어 불상에 시납되기 이전에 한 동안 주지 계상이 소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첩은 표지의 색상과 동일한 색지로 별도로 제작한 포갑으로 둘러싼 원래 상태로 남아 있다. 현재 <보령장>은 중국의 국가도서관을 비롯하여 일본 増上寺 등에 다수 수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는 전본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18) 일본 増上寺 소장 보령사판 如志의 題記. “各欽受聖旨, 護持宗教. 成就大緣. 始自丁丑(1277), 迄于庚寅(1290), 凡一十四載, 由先師本願力故, 得以圓成如來一大藏經版, 好事所集, 無量功德”. 이상의 내용은 李際寧의 『佛經版本』(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135-140에서 참고.

5. 守國寺 腹藏典籍의 性格

5.1 腹藏典籍의 層位

수국사의 아미타불상은 조성기와 복장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고려 1239년에 철원의 보개산 심원사에서 조성된 이래 3차례 이상 개금 중수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다면 불복에서 수습한 불교전적은 조성 이후 여러 차례 중수 과정에서 시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수국사 복장본 16종 24점은 간행 시기나 관련 목서 기록을 통해 대략적으로 고려본과 조선본으로 구분되어 지고, 그 외에 원나라 보령사에서 1290년 조성한 대장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찰하였다. 특이하게도 수국사 복장본은 다른 불상에서 수습한 전적과는 달리 대부분 표지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불상에 납입하였다. 그리하여 복장본의 외형적 특징을 분석하여 대략 조성과 중수 중 어느 시기에 불상에 납입한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고증을 통해 대략적인 시기는 구분되었으나, 고려본의 경우 최초 조성 과 제1차 중수시기로 걸쳐있고, 조선본 또한 제2차와 제3차 중수 시기로 구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우선적으로 복장전적의 간행시기를 살피는 한편으로 복장본을 시납하면서 표시해 둔 목서 기록을 분석하여 각 층위별 봉납한 전적을 분류한 결과 <표 6>과 같다.

<표 6> 층위별 복장전적 현황

층위	시기	해당 복장전적	종수	근거
제1층위	불상 조성(1239년)	大方廣佛華嚴經(晉本), 妙法蓮華經(12C)	2	간행시기
제2층위	제1차중수(1388년)	密教大藏, 佛說摩利支天菩薩陀羅尼經, 普寧寺板大藏經	3	간행시기
제3층위	제2차중수(1562년)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金剛般若波羅蜜經, 蒙山和尚法語略錄, 妙法蓮華經(1422), 妙法蓮華經(1539),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蓮經別讀, 五大真言, 地藏菩薩本願經	10	간행시기 施納墨書
제4층위	제3차중수(영조이후)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1	간행시기 紀年墨書

제1층위에 해당하는 전적은 불상 조성 당시에 봉납한 화엄경 등 2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2종의 복장전적은 인경한 종이의 지질이 매우 흡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불상 조성 이전 시기에 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화엄경은 11세기에 각판된 판본이 분명해 보이고, 법화경은 송판의 복각으로 표지가 감지로 장책되어 있어 12세기 무렵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층위는 고려 말 1388년 불상을 1차 중수하면서 시납한 불경으로 밀교대장과 보령사판 대장경이 이에 해당된다. 밀교대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밀교 대장경인데, 그 동안 『세종실록』 등에 기록상으로 전해 오던 것과 동일한 경전으로 생각된다. 함께 불상에 납입된 보령사판 대장경은 다른 불상에서 수습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존본이 6첩에 불과하여 불상에 시납하였을 당시에 대장경 전질 중에 일부만 봉납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제3층위에 해당하는 전적이 10종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전적은 불상을 조성한 철원 심원사에서 2차 중수시기에 납입한 것이다. 복장본의 목서 기록을 통해 중수 당시 성인 비구 등은 오래 전부터 준비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는 불상의 중수 시에 불경을 시납하기 위해 사중에 전해오던 전적 뿐 만 아니라 따로 인경지 3권을 마련하여 심원사판 몽산법어와 법화경, 그리고 봉은사판 약사경과 청용사판 『연경별찬』을 인출하였다. 이때 함께

납입한 불경에는 세조가 먼저 죽은 덕종을 기리기 위해 정축자로 인출한 <금강경 오가해>를 비롯해서 인순부윤 成抑이 일찍 죽은 사위인 誠寧大君의 극락왕생을 위해 대자암에서 개관한 법화경과 세종 말년에 효령대군과 안평대군이 대공덕주가 되어 간행한 지장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본에는 ‘雍正4(1726)年’ 목서 기록이 있는 預修文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조 재위기인 1726년 이후에 제3차 중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불서 1종만 수습된 것으로 보아 이때는 복장물을 그다지 추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5.2 腹藏典籍의 主題的 特徵

수국사 복장전적은 대부분 고려초기에서 조선중기에 걸쳐 간행된 귀중한 불경이 다수 들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필자가 『신수대장경목록』 등을 참고하여 고안한 <불교문헌 분류표>¹⁹⁾에 근거하여 분류한 결과, 이들 불경은 어느 특정 주제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분류 현황은 <표 7>과 같다.

19) 필자가 신수대장경목록과 불교대학 도서관분류표 등을 참고하여 불교문헌을 분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佛敎文獻分類表>를 고안하였다.

類目	A 經典類	B 律典類	C 論書類	D 註疏類	E 宗義類	F 史傳類	G 禮懺類	H 詩文類
細部項目	1 般若部	1 小乘部	1 釋經部	1 般若部	1 天台宗	1 傳記部	1 法儀式	1 韓國撰述
	2 法華部	2 大乘部	2 毘曇部	2 法華部	2 法相宗	2 靈驗部	2 齋儀式	2 中國撰述
	3 華嚴部		3 論集部	3 華嚴部	3 華嚴宗	3 寺誌部		3 諸國撰述
	4 寶積部			4 寶積部	4 禪宗	4 目錄部		
	5 涅槃部			5 涅槃部	5 淨土宗	5 事典部		
	6 經集部			6 經集部				
	7 密敎部			7 密敎部				
	8 諸經部			8 律典部				
				9 論書部				

<표 7> 수국사 복장본의 분류 현황

대분류	세부항목	해당 복장전적	종(책)수
經典類	般若部	金剛般若波羅蜜經	1(1)
	法華部	妙法蓮華經(12C), 妙法蓮華經(1422), 妙法蓮華經(1539)	3(5)
	華嚴部	大方廣佛華嚴經(晉本)	1(1)
	經集部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地藏菩薩本願經	2(2)
	密敎部	佛說摩利支天菩薩陀羅尼經,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密敎大藏, 五大眞言	5(6)
論書類	毘曇部	阿毗達磨大毗婆沙論	1(6)
宗義類	禪宗部	蒙山和尚法語略錄, 蓮經別讚	2(2)
禮儀類	齋儀部	預修十往生七齋儀纂要	1(1)

<표 7>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수국사 복장본은 전체적으로 경전류에 해당하는 전적이 12종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밀교와 관련된 불교전적이 5종 6책으로 가장 많은 포함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논서류, 종의류, 예참류에 분류되는 전적은 각각 1-2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보아 수국사 복장본의 성격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주제에 해당하는 불교전적이 포함되어 있으나, 밀교부의 대표적 불전인 <밀교대장>과 다라니경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불상 조성과 중수 시에 의도적으로 납입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6. 結 言

서울 은평구에 소재하는 수국사의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수습한 복장전적의 서지적 특징과 문헌적 성격을 고찰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로 요약 정리된다.

첫째, 수국사는 조선 세조가 일찍 죽은 세자(후에 덕종으로 추존)의 극락왕생

을 빌기 위해 현재 소재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인사를 초창한 이후 조선 후기에 중창하면서 현재의 사찰명으로 개칭한 왕실의 원찰이다.

둘째, 수국사 아미타불좌상은 전적의 납입 층위와 다라니의 인출시기 등의 분석을 통해 고려 1239년에 강원도 철원의 보개산 심원사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이래 대략 3-4회 정도의 개금 중수가 있었던 사실을 고찰하였다. 본래 불상 조성 당시에는 관음불과 세지불과 함께 아미타삼존불상으로 만들어 졌으나, 조선 태조 2년 화재로 2구가 소실되었으며, 그 중 아미타불만 보존되었다가 한국전쟁으로 철원의 심원사가 화재로 전소되자 불상만 현재의 수국사로 이운되었다.

셋째, 복장유물에는 전적류 등 다양한 성물이 납입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전적류와 다라니류를 분석한 결과 전적류는 16종 24점이 수습되었으며, 인쇄된 다라니는 모두 20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복장전적은 서지적 검토를 통해 고려시대 간행된 목판본은 6종 7첩이며, 조선시대에 간행된 금속활자본 1종과 목판본 8종, 그리고 원나라 보령사에서 인쇄된 <보령장> 1종 6첩 등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고려본에는 11세기에 개관된 화엄경은 사간판으로 후에 재조대장경에 편입된 저본경전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법화경은 송판계통의 판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것이며, 그 외에 밀교계통의 경전인 밀교대장, 지천경, 불정십다라니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고려본은 대부분 처음 소개되는 유일본들로 서지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전적으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중 밀교대장은 비록 1점에 불과 하지만 관련 기록으로 통해 고려 충숙왕 이전에 조성된 이후 조선 세종 때 주화엄경과 함께 일본 사신에게 반사하였으나 화재로 소실된 판본으로 실물이 처음으로 출현하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여섯째, 조선본에는 세조가 일찍 죽은 세자를 위해 자본을 친히 써서 주성한 정축자로 인출한 금강경오가해 권하 1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책의 권수에는 다른 불교전적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法施之寶』라는 반사인이 찍혀 있고, 권말에는 본서를 인출하게 된 전후 사실을 밝힌 어제발문 등이 수록되어 있어 서지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금속활자본이다. 그 외에 법화경과 지장경은 세종대에 간행

된 판본으로 주목되는 판본으로, 법화경은 세종의 넷째 아들로 일찍 죽은 성령대군을 위해 그의 장인 成抑이 대자암에서 개판한 판본으로 현재 여러 건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장경 또한 세종의 형님인 효령대군과 아들인 안평대군이 대공덕주로 가담하여 간행한 불경으로 소장처가 거의 없는 유일본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조선본 중에는 성인비구가 2차 중수 때 납입하기 위해 종이 3권을 마련하여 몽산법어와 법화경은 황주 심원사에서 판각한 목판에서 다시 인경하였으며, 약사경과 『연경별찬』은 봉은사와 쌍용사에서 판각한 목판에서 추가 인출하였던 판본에 해당된다. 그밖에 오대진언은 성종 16년(1485)에 인수왕대비가 중국본이 梵漢文으로만 되어 있어 읽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기에 언문을 달아서 간행하여 보급토록 한 것이다.

일곱째, 수국사 북장전적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대략 불상의 조성과 중수 등 4차에 걸쳐 북장본이 납입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불상이 조성되었던 당시에 봉납된 전적은 11-12세기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엄경과 법화경 2종으로 파악되었으며, 대부분은 1562년에 철원 심원사에서 2차 개금 중수하면서 시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불상에 봉납된 전적은 경전류 불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밀교 경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참고문헌>

-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서울: 일조각, 2013.
- 문명대. “守國寺 高麗 木阿彌陀佛坐像의 研究.” 『미술사학연구』 255(2007). 35-65.
- 邊東明. “忠肅王의 密敎大藏 金字寫經.” 『歷史學報』 제184집. 111-151.
- 손신영. “수국사의 역사적 추이와 가람배치.” 『강좌미술사』 30호(2008). 285-319.
- 송일기. “寶成禪院 三尊佛의 腹藏典籍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4호(2012. 12). 271-295.